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김정희¹, 최연선^{2*}

¹명지대학교 객원교수,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 of Decision-making Attitudes within the Family on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ung-Hui Kim¹, Yeon-Sun Choi²

¹Myongji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²Student, Ha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요약 본 연구는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전체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693명을 추출한 뒤, 결측치 및 이상치, 가중치를 제거하여 총 51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 간 영향력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인권의식 고취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개입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 의사결정 태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influence of family decision-making attitudes on adolescents' human rights awarenes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from th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surveyed in 2018 were used and analyzed. After extracting 693 adolescents with part-time work experience among all respondents in this data, missing values, outliers, and weights were removed, and a total of 511 people were selected as final research subjects. The SPSS WIN 25.0 program was used to verify the influence and mediating effec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confirmed in the influence of decision-making attitudes within the family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In addition,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was suggested for desirabl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enhancing self-esteem suggested.

Key Words : Decision-making attitude, Human rights awareness, Self esteem,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1. 서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본질적 속성과 가치를 가장 먼저 보호하기 위한 공식화된 도구이다[1]. 또한 인권은

다른 가치들보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간사회 속에서 속성과 가치의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사회 속에서 속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점을 반영하

*Corresponding Author : Yeon-Sun Choi(cys751113@naver.com)

Received August 26,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Revised September 23,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여 속성과 가치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요구한다 [2].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사회 속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하늘이 내려준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로서 존중받을 당위성을 갖으며 현행법도 명백히 규율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주체로서 마땅히 존중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동시에 미래의 주역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청소년 인권존중을 규율하고 있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4].

이러한 상황은 인권존중으로 시작되어 인권의식으로 확장되는 등의 다양한 연구로 귀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청소년 자치활동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5,6], 초등학교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2], 고등학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인권의식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과 타인의 인권존중을 의미하며, 인권존중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7]. 또한, 인권의식은 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능력과 타인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다 [8].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내 의사결정 태도는 인권의식과 관련이 있어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 내 의사결정 태도와 인권의식 간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견해나 태도,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및 연구는 자명한 사실이며, 높은 인권의식 배양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도 요구된다.

가족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의 인정 받음과 함께 인권의식의 배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 가정과 성인으로부터 존중받을 경험들 통해 긍정적인 인권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존중받을 경험 이외에 청소년 자신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도 청소년이 인지하는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5,10]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권존중의 경험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킬 수 있다[6]. 인권존중과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타인의 인권존중에 대한 당위성도 감지되어 인권의식의 증가로 귀결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에서 인권의식은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1]. 논의 과정에서 인권의식의 배양은 인권의식에 대한 이해와 인권 친화적 태도를 획득할 수 있어[2] 청소년이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인권의식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아울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와 청소년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와 청소년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족 내의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와 청소년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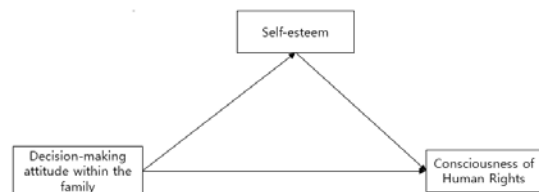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전체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693명을 추출한 뒤, 결측치 및 이상치, 가중치를 제거하여 총 51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

독립변수인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자의 존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인권의식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53로 높게 나타났다.

2.3.2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2](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변안하여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간 상관관계수가 .4 미만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1 문항을 제외한 총 3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90로 높게 나타났다.

2.3.3 인권의식

종속변수인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인권의식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간 상관관계수가 .4 미만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1문항을 제외한 총 6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인권의식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64로 높게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측정 변인 간 영향력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청

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인의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 간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3]의 단계적 회귀분석과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결과를 Table 1과 같이 나타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boy	285	51.7
	girl	266	48.3
Grade	good	95	17.2
	normal	220	39.9
	bad	236	42.8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461	83.7
	Single parents, etc	90	16.3
Economic level	good	208	37.7
	normal	231	41.9
	bad	112	20.3

성별은 남학생 51.7%, 여학생 48.3%, 성적은 상 17.2%, 중 39.9%, 하 42.8%, 가족 형태는 양부모 83.7%, 한 부모, 기타 16.3%, 경제 수준은 상 37.7%, 중 41.9%, 하 20.3%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분석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Table 2와 같다. 먼저,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의 평균값은 3.33 표준편차 .55, 왜도 -.69, 첨도 1.0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2.87 표준편차 .78, 왜도 -.40, 첨도 -.20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의 평균값은 3.27, 표준편차 .49, 왜도 -.90, 첨도 1.51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평균값은 .09, 표준편차 .22, 왜도 2.70, 첨도 6.88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3과 10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규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599)

variable	Mean	S.D	Skew	Kurt
①	3.33	.55	-.69	1.07
②	2.87	.78	-.40	-.20
③	3.27	.49	-.90	1.51

① Decision-making attitude within the family, ② Self-esteem, ③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3.3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는 자아존중감($r = .31, p < .01$), 인권의식 ($r = .23, p < .01$)와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r = .24, p < .01$)와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①	1		
②	.31	1	
③	.23	.24	1

* $p < .05$, ** $p < .01$, ① Decision-making attitude within the family, ② Self-esteem, ③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3.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가족 내 의사결정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3]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 이후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1에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과 인권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Model 3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또한,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Model 1에서 가족 내 의사결정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 = .38, \beta = .27, p < .001$),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0%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가족 내 의사결정은 인권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 = .21, \beta = .24, p < .001$), 인권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약 11.0%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가족 내 의사결정($B = .16, \beta = .18, p < .001$)과 자아존중감($B = .14, \beta = .22, p < .001$)은 인권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권의식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0%로 나타났다.

Table 4. Mediated effect

Variable	Model 1 ①→②		Model 2 ①→③		Model 3 ①→②→③	
	B	β	B	β	B	β
Gender	.15	.10*	-.19	-.20***	-.21	-.22***
Grade 1	.31	.15**	.13	.10*	.09	.07
Grade 2	.09	.06	.05	.05	.03	.03
Family type	-.03	-.01	-.02	-.02	-.02	-.01
Economic level 1	.29	.18**	-.09	-.09	-.13	-.13*
Economic level 2	.11	.07	-.14	-.14*	-.16	-.16**
①	.38	.27***	.21	.24***	.16	.18***
②					.14	.22***
F	13.88***		9.71***		12.185***	
R2	.15		.11		.15	
Durbin-Watson	2.00		1.93		1.93	

* $p < .05$, ** $p < .01$, *** $p < .001$, ① Decision-making attitude within the family, ② Self-esteem, ③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Model 2에서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이 투입된 Model 3에서의 영향력이 낮아졌으며($\beta = .24 \rightarrow \beta = .18$), 이는 자아존중감이 가족 내 의사결정과 인권의식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Table 4의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4.02, $p < .001$ 로 확인되었다.

Table 5. Sobel test

path ①→②→③	Z	P
	4.02	.000

* $p < .05$, ** $p < .01$, *** $p < .001$, ① Decision-making attitude within the family, ② Self-esteem, ③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4. 결론

본 연구는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실천적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가족 내의 의사결정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6,11]와 일치한 결과이다. 청소년은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를 존중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 어려운 문제의 직면 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청소년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의 보장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는 청소년이 가정에서 목소리를 내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목소리 반영은[14-16] 인권의식 증대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존중 받는 의사결정 태도는 인권 보호는 물론이며 긍정적 인권의식 전제로 설명된다.

둘째,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이 인지하는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9,14]와 일치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의 존중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인권의식의 증가는 청소년이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올바른 인권 의식 고취의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청소년이 가정에서부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6,11,17]와 일치한 결과로 청소년의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기제로 설명된다.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 증진, 청소년의 인권의식 고양,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실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상술하여 제시한다.

첫째, 가족 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가족 내 의사결정은 입시 위주 교육환경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소통보다는 단절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이에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을 제안한다. 아르바이트 참여 활동은 청소년이 직업을 갖기 전 사회활동 참여의 일부분으로 아르바이트 활동 중에 인권이 훼손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타인의 인권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차용하여 부연하자면, 타인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존중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을 물론 자아실현의 디딤돌이 되고, 개인의 자아실현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근거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권의식 고양은 건강한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한다. 각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친구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문제해결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은 심리-정서적 건강과 높은 사회성 발달 증진은 물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어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인권의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 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퇴보하는 시점에서 의사소통 태도와 인권의식,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확률 표집을 통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S. H. Kim. (201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cultural intellig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11(1), 71-97.
- [2] S. J. Park & T. S. Im.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judgment.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3(2), 39-58.
- [3] <https://www.law.go.kr/>
- [4] Y. M. Cha & S. H. Cha. (2019).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convergence relation 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0(10), 207-214.

- [5] D. J. Hwang., H. Song & S. H. Kim. (2015).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education on adolescents' awareness of human right -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77-100.
UCI : G704-000387.2015.22.10.008
- [6] A. N. Hyun. (2016). Effects of adolescents on human rights awar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5(0), 187-212.
DOI : 10.32465/ksocio.2021.31.1.002
- [7] J. Y. Kim.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ypology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6(2), 57-83. DOI : 10.29175/klrea.6.2.201112.57
- [8] J. H. Koo. (2004). Conceptual development and contents of human right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Education*, 43(2), 65-84.
UCI : G704-001280.2004.43.2.010
- [9] J. H. Jeon. (201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chool environment on the youth attitude towards human rights. Seoul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thesis.
- [10] H. S. Jeon. (2021). The influence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parents abus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54(0), 53-77. DOI <http://dx.doi.org/10.20993/jSSW.54.3>
- [11] J. E. Kim & J. S. Kim. (2021).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nd human rights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7(6), 51-57.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1>
- [12] M. Rosenberg. (1986).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 Pack 61:52.
- [13]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14] J. S. Lee. (2006). A research on state and recognition of adolescents' human rights.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0(3), 461-485.
UCI : G704-000427.2006.10.3.001
- [15] J. Y. Lee., Y. M. Lee., M. L. Kim., S. H. Ahn & H. S. Lee. (2020).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4(4), 85-104.
- [16] Y. K. Kim. (2019). Structural influencing relation family and school culture of highly human rights 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by its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91-102
DOI : 10.35873/ajmahs.2019.9.11.009
- [17] Y. G. Choi.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youth human rights awareness on school violence.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1(0), 1293-1315.
DOI : 10.22251/jlcci.2021.21.1.1293

김정희(Jeong-Hui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 복지학사
- 2013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22년 9월 현재 : 명지대학교 아동복지상담학과 객원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아동·청소년 & 노인분야)
- E-Mail : junghui0813@naver.com

최연선(Yeon-Sun Choi)

[정회원]



- 2014년 2월 : 명지대학교 아동학사
- 2016년 2월 : 광운대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0년 3월~현재 : 한세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행정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가족, 노인분야)
- E-Mail : cys751113@naver.com